

동양제철화학(주) 군산공장 '제7회 가족초청 한마음 체육대회' 로 하나되다

동양제철화학(주)군산공장(공장장 박준영)은 지난 10월 9일 사내 대운동장에서 가정과 직장이 하나되는 공동체 한마당 행사로 '제7회 가족초청 한마음 체육대회' 를 개최하였다.

가정과 직장이 함께하며 활기차고 보람찬 일터를 조성코자 매년 실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군산공장내 모든 사원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 모두가 참석, 400여명의 선수가 5개팀으로 나뉘어 축구, 족구, 단축마라톤, 가족오락게임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하나된 동양제철화학을 보여주었다.



금년 행사가 7돌을 맞이한 동양제철화학(주)군산공장은 새롭고 신명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안전한 일터, 무재해 일터로 이어나가고 있다.

IG건설, 전현장 안전관리자 워크숍 실시

IG건설(대표이사 金甲烈)은 최근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을 재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전현장 안전관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8일 실시하였다.

IG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孟元在 HSB혁신본부장의 당부사항과 안전관리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팀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지역별 안전관리자 협의회 별로 준비한 ▶시공중심 책임안전관리 방안 ▶안전점검 효율화 방안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안전작업 절차서 운영제도 내실화 방안 ▶건설 중장비 운영관리 표준화 방안 ▶협력회사 안전활동 강화 방안 등의 '안전관리 개선과제' 의 발표도 이어졌다.



이외는 별도로 토목현장의 안전관리자, 본사 안전팀, 안전혁신특별팀, 대한산업안전협회 1,2,3 안전기동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목현장 안전활동 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 협력회사 안전관리비 운영제도 및 교량작업대차 운영관리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금성방재공업(주) 단독형 화재경보기 개발

종합방재시스템 전문기업인 금성방재공업(주)는 최근 단독형 화재경보기(제품명 :XFIRE 화재알리미)를 개발하여 주택이나 기존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0여년 전부터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5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있었으나 국내에서의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개발된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에 따라 거실·침실용(광전식)과 주방용(정온식) 등 두 종류가 있는데, 국내 실정에 맞게 주변 환경에 따른 오작동을 최소화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금성방재공업(주)의 단독형 화재경보기 개발이 주거용 주택에 있어 화재를 알리는 파수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KTE 무재해 5배 달성 쾌거 이룩

(주)KIE는 무재해 5배 목표달성을 하고 안전공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증식을 가졌다.

현장 근로자와 경영주가 하나가 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지난 98년 9월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이래, 금년 8월 무재해 5배수에 달성하였다.

(주)KIE는 1979년 창사이래 전 세계의 주요 유명 선사(船社)에 선박용 전장품(電裝品)을 공급해 왔고, 선박용 전장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세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경영주의 투철한 안전 의지와 이를 지키려는 근로자의 의지가 합쳐져 오늘의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주)KIE는 과거 동종업계 전국 재해율을 상회하는 재해 다발 업체였으나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 의지로 무재해 사업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이에 이번 무재해 5배수 달성은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KIE에서는 2001년 7월,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운동-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함과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18001 인증 획득을 비롯해 정기적인 자체 안전 점검 등 다각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